

영어교육도시 영어상용화 및 외국인 정주 여건 조성방안

The Jeju Weekly 대표 송정희

특별자치를 통해서 얻어진 규제완화와 자치권을 바탕으로 한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하는 제주의 위상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외국인이 제주를 투자의 대상으로 선택할 가능성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동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심장으로서 떠오르고, 국제정치적의 주요 무대로 등장하면서,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가 부각되고 있다.

I. 제주 영어교육도시 영어상용화 정의와 목표

1. 영어상용화의 정의

- 1) '특정영역에서 영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환경의 조성'(모종린, 2008)
- 2) 영어상용화 (common language): 소통화 + 영어환경조성 + 공공기관의 외국어서비스
 ※영어공용화 (official language): 소통화 + 상용화 + 모든 공식 커뮤니케이션의 영어화.
 비영어권 국가나 지역에서 영어를 또 하나의 공식언어로 사용, 현재 47개 국가나 지역에서 영어를 또 하나의 공식 언어로 사용하고 있음.

2. 제주영어교육도시 정주 여건 환경

1) 인구구성 전망 (단위: 명, JDC)

- 학생: 12,260 (65%)
- 학부모: 3,116 (16%)
- 교원 및 동거인구: 2,393 (13%)
- 제주도민 유입인구: 1,117 (6%)

2) 계획인구 : 2015년까지, 약 2만 2천명, 5,721세대 예상

3) 외국인 유치목표는 약 1,158명으로 외국인 비중은 전체 인구의 5%.

- ※ 영어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외국인비중이 20% 이상이 되는 게 바람직.

4) 영어교육도시 주요시설

- 국제학교 (12개교, 9천명 규모) 및 외국교육기관(해외대학 및 대학원)
- 영어교육센터 : 영어 교사, 영어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컨설팅,
해외 어학연수 대체프로그램 운영, 등
- 교육문화시설 : 학부모 및 관광객, 지역주민을 위한 대단위 평생교 시설로 오페라, 연극,
무용, 전시회 등 영어 교육문화 예술 프로그램 연중 운영
- 주거 및 상업시설, 도서관,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3. 제주영어교육도시 영어상용화 목표와 적합 모델

1) 교육과 생활을 모두 영어로 할 수 있는 정주형 영어교육도시

2) '환경중심모델': 영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환경 조성

'인력중심모델': 교육과 인재유치를 통해 구성원의 영어수준을 높이는 모델

'생활중심모델': 영어사용에 대한 실질적 수요가 존재하거나, 외국인을 포함한

일정규모의 영어사용인구가 거주하는 모델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영어도시 이점과 지속가능한 상용화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영어사용 환경과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한 생활, 환경중심모델이면서, 기존모델의 장점을 살린 복합형 모델”이 바람직(모종린, 2009)

3) 제주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차별화된 영어상용화 모델 바람직

II. 영어상용화 및 외국인 정주여건 환경

1. 현실과 한계

1) 영어사용 외국인 비중

영어상용화를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외국인이 영어도시에 거주해야 한다. 세계적 수준의 영어환경을 제공하는 제주영어도시에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 외국인 비중은 20% 이상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외국인 유치 목표는 약 1,158명으로 외국인 비중은 전체 인구의 5%이다.

2) 영어행정서비스 및 우수 영어 사용 인적 인프라

영어사용 원어민 강사와 영어우수자를 교육과 생활환경 전반에 모두 배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영어교육도시를 운영할 행정기구와 행정인력이 영어를 공식언어로 사용할지, 엄격한 영어사용기준이 있다 해도, 상업시설 등에서 영어사용기준을 이행할지는 미지수이다. 영어 우수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 초기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들을 활용해서 효율적 학습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한 재교육과 구체적 운영 프로그램이 수반되어야 한다.

3) 외국인을 위한 행정/생활 서비스 매뉴얼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인과 학생을 위한 영어 행정/생활서비스 매뉴얼은 결국 제주도 전체의 영역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의료, 법률 등 전문분야는 제주도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및 상호협조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위한 제주도의 전문분야 영어사용 환경조성은 아직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다.

4) 제주도의 영어상용화 환경 및 외국인 정주를 위한 여건

영어교육도시의 영어상용화가 단지 도시 내 폐쇄적 공간에서의 상용화를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지역커뮤니티와 끊임없이 상호교류하며, 제주도 전체가 학습과 생활의 무대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면, 제주도 전반의 영어상용화 환경 및 외국인을 위한 정주요건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취약하다.

- 외국어 정보인프라의 부족 & 외국어정보 one-stop 서비스 부재
- 외국인 커뮤니티와 제주도와와의 소통의 단절
- 간판, 지명이름, 등 일관성, 표준화 부족하고 어색한 표현 많아
- 교통과 언어소통은 아직도 외국인 불편사항 1위
- 글로벌 에티켓, 문화의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

2. 강점과 경쟁력

1) 제주의 자연환경, 문화, 역사 등은 외국인에게는 가장 큰 매력요소

- 제주의 자연과 환경, 문화 등이 이미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유네스코 3관왕이라는 명예도 제주만의 잠재력이다. 외국인들이 의외로 제주의 ‘해녀’ ‘샤머니즘’ ‘신화와 역사’에도 매우 많은 관심을 갖고, 이를 연구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 제주만의 독특한 환경, 문화적 강점을 영어교육도시와 어떻게 연계시킬수 있는냐는 제주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영어교육도시를 지향한다는 목표를 성취하는데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된다.

2)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라는 제주의 위상과 지정학적 위치

-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얻어진 규제완화와 자치권을 바탕으로 한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하는 제주의 위상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외국인이 제주를 투자의 대상으로 선택할 가능성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동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심장으로 떠오르고, 국제정치의 주요 무대로 등장하면서,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가 부각되고 있다.
- 100만 명 이상의 도시만 43개에 이르고 대륙-해양 세력의 연결 통로인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를 십분 활용하고, 동북아의 교육수요를 고려한다면, 아시아 지역을 포괄하는 영어교육의 허브로서의 성장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3) 영어교육도시가 갖는 다양성과 영어 환경은 차별화된 경쟁력

- 한 도시 내에 초·중·고 12개교의 국제학교와 영어교육센터, 외국교육기관, 주거 및 문화시설 등이 한꺼번에 들어서는 경우는 한국 최초이다.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제도적 여건과 세계명문학교 프로그램의 독자적 운영, 비영어권 학생들을 위한 최적화된 교육 프로그램, 제주의 독특한 자연환경, 안전하고 편리한 최첨단 U-city지향 등은 제주도 영어교육도시가 갖는 차별화된 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
- 영어교육도시를 성공케이스로 만들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재정적 지원, 그리고 제주도 차원의 노력도 매우 중요한 강점요소이다.

4) 외국인 유입 인구 매년 10% 이상 증가와 외국인 관광객 증가

- 현재 제주거주 외국인 인구는 약 8,000명으로 제주도 전체인구의 약 1.3 %를 차지하고 있다. 매년 외국인 유입 인구가 10% 이상 증가하고 있고, 이는 외국인들이 community service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그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다양화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을 영어교육도시로 유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그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프로그램과 영어거리 조성 가능. 외국여행자들을 위한 체험센터, 외국인 관광객 가이드 체험 등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5) 제주도 다양한 국제행사와 외국인 전문가 방문기회 증가

- 서울에 이어, 제주만큼 다양한 국제행사가 열리는 곳도 없다. 환경을림픽이라고 불리는 2012 WCC (세계자연보전연맹)가 제주에서 열리고, 올 해만 해도, 지난 5월 제주포럼개최, 올 가을, 5000 명 참여가 예정된 수의사학회, 9월에 예정된 9천명의 중국인 기업 인센티브 투어, 여름에 정기적으로 열리는 국제관악제 등 국제행사가 다양하다. 한.일.중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외국인 석학을 초청하여 열리는 세미나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 제주영어교육도시라는 벽을 허물면, 교육공간은 더 넓어지고 다양해질 수 있다. 이런 국제행사를 영어교육도시와 연계하거나 불러들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다 할 것이다.

III. 영어교육도시 영어상용화 및 외국인 정주 여건 조성 방안

(핵심 성공요인과 현실적 제언을 중심으로)

1. 비영어권 영어상용화 성패 사례 연구 및 제주의 장점 살린 적합모델 개발

1) 국내/외 영어상용화 성공과 실패 사례가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이며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 핀란드, 스웨덴, 네델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의 성공적인 사례 벤치마킹 필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나라로 알려진 스웨덴의 경우, 가장 큰 원인은 1) 영어커리큘럼이 의사소통(communication)중심 2) 말하기와 작문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대화하는 교육 3)주입식 교육보다는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교육 4)

프로젝트 중심의 Group Study 활발 5) 선다형 (multiple choice) 시험문제는 거의 없고 독서량과 사고력을 평가하는 보고서 형식의 평가 6) 몰입교육과 영어대중매체 적극 활용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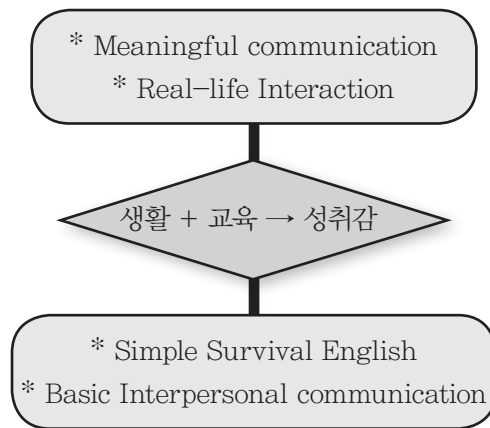
- 국내외 영어체험 프로그램은 “영어마을” “영어학습센터” “영어타운” “영어 학습체험센터” 등으로 2003년부터 지자체, 교육청, 민간기관이 주체가 되어 설립하기 시작하였고, 전국적으로 20여 곳이 넘지만, 거의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고,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상업시설의 엄격한 영어상용화 규정에도 불구하고 잘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원어민 영어강사와 영어 우수인력이 배치되어 있지만 프로그램의 실효성은 여전히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행정기구와 인력도 영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2) 저비용/고효율 영어수요자 확대 및 영어전문인력 거버넌스 구축

- 영어사용 수요를 인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많은 예산 투자를 필요로 한다. 도내 영어사용자 critical mass 구축과 그들과 연계한 다양한 행사와 교류프로그램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전문 영어인력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재 도내의 잠재된 영어 전문인력과 원어민, 영어사용 가능 인력을 최대한 확보, 활용하고 연계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 수준별, 단계별 영어 수요자 및 영어 인적자원 현황 파악의 필요성
 - 핵심 전문인력: 원어민 교원, JDC가 제시한 핵심전문인력
 - 전문인력 1: 영어교육시설 등 영어교육도시 관련 전문인력 (외국인 + Bilingual)
 - 전문인력 2: 제주도내 거주 전문 인력으로 활용 가능한 영어 인적자원
 - 영어사용가능 외국인: 필리핀, 싱가포르, 스페인 등 다문화가정
 - 영어사용가능 한국인: (국내 인턴십 활용 등)
- 도내 Foreign community 내 Critical mass와의 네트워크 구축
 - 교육기관 및 공기관 종사자 외국인
 - 도내 원어민교사 및 교환교수
 - 영어 언론, 방송 종사자,
 - 전문직 은퇴 제주 정착 외국인 혹은 전문직 종사자 외국인
 - 관광지, 숙박시설, 식당, 여행사 운영 외국인 혹은 Bilingual
 - 다문화가정 내 영어사용자
 - 대학 내 외국인 교환학생 - 외국인 근로자 -기타

- 도내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 네트워킹을 통한 영어수요자 확대
 - 공공기관: 출입국사무소, 도청 유관부서 등
 - 언론/방송관련: 아리랑 라디오, KCTV 영어뉴스, 제주위클리
 - 관광, 회의관련: 제주관광공사, ICCJEJU, 제주 컨벤션뷰로우
 - 국제교류관련: 제주평화연구원, UNITAR 유엔기구, 제주대학교 국제교류센터
 - 영어 교육, 통번역관련: 대학교 외국어교육원, 제주대학교 통번역센터
 - 다문화가정센터 (제주시, 서귀포시)

3) 영어상용화를 위한 단계별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 영어교육도시 내 영어 사용 환경조성으로 인해, 기본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습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정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단계에서는 성취감을 느낄 수 없다. 영어상용화의 개념이 영어행정서비스 표준화, 영어표지판, 안내문작성, 간판, 메뉴 등 Basic Survival Skill이나 시설정보 영어화 등 하드웨어적 측면에만 중점을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이런 하드웨어를 움직일 소프트웨어적 측면, 즉 교육과 생활을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이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어상용화가 가능하다.
- Task / Project based English Programs and Activities
 영어교육도시 내에서 이상적으로는 영어전용공간이지만, 현실적으로 외국인 비중이 낮고, 한국어가 통용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아무리 강제성을 부여해도 영어전용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란 어렵다. 오히려 어색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영어/한국어 혼용된다 해도 Task 중심, Project 중심의 의미있는 영어 활동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한다.

- 도내 외국인을 위한 행사 및 자생적 외국인 모임 연계를 통한 Authentic output (자연스런 언어사용) 유도

국제교류프로그램이나 문화행사, 체험활동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내 자생적 외국인 행사 및 모임,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축제나 문화행사와 연계하는 것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 나라별 소모임: French club, Spanish club 등
- 종교활동: 영어예배서비스, Temple Stay
- 카우치서핑 (Couch Surfing): 외국인여행자들을 위한 비영리 커뮤니티
- 스포츠: 정기축구모임, 여름 비치발리볼
- 한국어수업: 제주대학교, 다문화교육센터, 서귀포시청 등
- Fundraising activity
- 외국인이 많이 참여하는 축제 (다문화축제, 들불축제, 마라톤대회 등)

4) 세계적 가치가 있는 제주의 자연, 환경, 문화, 역사를 콘텐츠로 한 차별화된 체험 학습 프로그램 개발 필수

- '제주는 섬 전체가 살아있는 박물관'이다. 현장 영어 학습 및 체험 프로그램을 위해 제주만큼 훌륭한 콘텐츠를 보유한 지역도 드물 것이다. 제주의 자연생태학습과 연계한 영어프로그램, 제주의 관광자원을 이용한 체험학습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주도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영어상용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특히, 유네스코 3관왕 (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곶자왈, 해녀, 4.3의 역사, 제주의 굿과 무속신앙, 오름, 동굴, 등을 콘텐츠화 하면,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뿐 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스펙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 중심의 활동도 가능하다.
- 실제로 도내 중/고교 환경동아리들이 제주의 환경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보고서를 내어 환경부 대상을 받거나, 전국단위의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여,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하였다.
- 이를 위해서는 분야별 (자연, 환경, 문화, 역사, 등) 영어가능 전문가 DB구축이 필요하고, 출판 활동, 영어논문 제출 등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결과물과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영어교육도시 내 영어상용화란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야 한다.

5) 자발적 ESL 환경조성 및 유인방안

- 도시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및 상업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수한 영어사용 능력을 구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육시키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구성이 더 중요할 것이다. 영어권 나라에서 외국인 가정에 홈스테이를 한다고 해서 영어가 저절로 향상되는 게 아닌 것과 같다.
- 닫힌 공간에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는 환경에서 쓰는 영어사용 범위가 지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meaningful context가 주어지지 않으면 늘 반복되는 비슷한 영어가 사용되기 쉽고, 사용자는 금방 익숙해지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어상용화라 보기 힘들다. 조성된 영어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상상력과 검증이 필요한 콘텐츠가 있느냐가 관건이다.
 - 영어사용 제도적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상업시설 종사자의 영어사용능력 구비
 - 공공기관 영어 행정서비스 제공
 - 영어상용화 정책의 법제화 방안 및 행정기관 협력 방안
 - 영어용어 표준화, 정부문서 영어화, 영어대중매체 지원,
 - 시설물의 영문표기화
- 민원대응 영어교육실시, 공공기관 종사자의 영어대응서비스, 상업시설 종사자의 영어사용 능력 함양, 다수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영어상용화 등은 비용과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기적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학생이나 정주민의 영어상용화에 대한 만족도, 성취도를 높이는 critical factor인가라는 측면에서 무엇이 우선시되어야 하는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 자발적 ESL 환경조성의 핵심 요인은 1) 외국인 비중을 높이는 것 2) 유의미한 영어투입 및 노출(방송, 노래, 잡지, 대화와 토론) 증가와 외국인과의 상호작용의 양을 늘리는 환경조성 3) 학생과 정주민의 영어사용에 대한 자발적 동기부여라 할 수 있다.
- 이를 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영어전문인력과 영어사용가능인력을 효율적으로 참여시키고, 활용하는 저비용 고효율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제주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영어상용화의 질적 수준향상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게 우선순위일 수 있다.

6) 온라인 공간을 활용한 영어상용화 중요성 증가

- 온라인 공간과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언어습득 환경조성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자기주도 학습의 일환으로뿐만 아니라, 외국인과의 interaction, 학생들 사이의 사교와 정보교류도 영어로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 학습 공간:
 - E-learning
 - U-learning (Ubiquitous learning -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체계)
- 사교, 소통의 공간
 - SNS 활용한 자발적 온라인 영어 사교, 소통 공간 시스템화
 - 외국인과의 interaction과 networking을 위한 온라인 공간 확보
- 정보교류의 공간
 - 학생들에게 학습활동 성과나 학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도 온라인을 통해 영어로 공유.
 - 현재 도내 외국인들이 가입하여 만든 카페 (예를 들어 rhymeswithjeju)에 가입, 외국인들이 제주생활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등의 교류를 할 수 있다.

7) 외국인 정주요건 조성을 위해 분야별 매뉴얼 확보와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십

- 법 Legal Service
 - 의료 Medical Service
 - 교육 Educational Service
 - 관광 및 생활환경 Tourism & Living Conditions
 - 경제, 투자 Business & Investment
 - 카운셀링 Counseling Service
- 영어가 가능한 병원이나 의사에 대한 질문, 운전면허취득 (특히 오토바이 운전면허)에 대한 질문, 사고가 났을 경우 필요한 법적인 정보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한국어수업에

대한 질문 등, 외국인 생활조건에 대한 매뉴얼화 작업이 이루어져야하고, 이를 위해 제주도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및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8) 영어교육도시 내 원스톱 콜센터 및 영어서비스 센터의 필요성

- 영어업무의 행정화 지원, 기관이나 거주시설의 영어경쟁력제고, 영어사용 부담감 해소 등을 위한 영어서비스 센터가 필요하다.
- 외국인을 위한 원스톱 콜센터 운영, 문제점 및 불편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IV. 결 론

-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명시된 목표는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으로 영어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기회를 제공하여 누구에게나 배움이 즐거운 도시”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연구와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 그런 연구와 방법들이 제주의 현실과 한계를 인식하고, 장점과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어떻게 구현되고 구체화되어야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아 보인다. 올 9월 개교를 앞 둔 이 시점이 라면 “영어상용화”와 “외국인 정주요건 조성방안” 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프로그램들이 집중력 있게 실행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어야 할 것이다.
- (1) 차별화 (2)특성화되면서도 (3) 저비용 고효율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변여건조성과 하드웨어적 시설투자도 중요하지만, 고도의 소프트웨어 콘텐츠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제주만이 가지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제주도내 잠재된 영어사용 인력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기존의 영어상용화 실패사례를 극복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 영어상용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미미한 효과와 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1) 꼭 해야 하는 것 (중, 장, 단기), (2) 제주만이 할 수 있는 것 (3) 제주가 할 수 없는 것을 가려내는 일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